

#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열왕기상19:15-16, 골로새서1:24-2:5

최정용 원로목사님

오늘 이 시간은 복음의 핵심인 메시아와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오늘 주제는 골로새서에 나온 주제를 그대로 한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있다. 그 창조 가운데 으뜸, 왕관은 창세기 1:26-28에 나온 인간창조다. 하나님의 결작품, 여자가 왜 이렇게 아름다운가 했더니 그 마지막 작품이 여자다. 감사해야 한다. 여기서 신분과 사명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다른데서 잘 말하지 않는데, 우리가 마지막 부른 찬송은 그렇게 복음일 수가 없다. 여러분 입에서 선포되고 찬양되는 것이 놀랍다. 창세기 2:17에서 주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창조물과 피조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최초의 언약이다. 행위 언약 가운데 최초의 언약인데 여기서 선악과를 지칭한다. 동산나무에는 온갖 나무열매가 있었다. 바로 옆에는 영생하는 열매도 있었고, 그 열 먹으면 죽지 않는데 먹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 창세기 3:1-6에서 인간은 무너진다. 그 기간이 많지 않았다. 정말 이것은 더 없는 불행이었고 슬픔이었으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사건이었다.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하셨는데 사탄이 뱀으로 둔갑하여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다.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다. 지금도 의사를 단호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만 자기를 지킬 수 있다. 회미하게 하면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것은 test가 아니고 temptation이었다. 유혹이었다. '먹지 말라 하더냐'하며 꼬아서 물었다. 하와가 그 말의 꼬임에 당했다. '아니야, 다 먹으라고 했어' 하고 결국 먹었다. 그래서 결국 먹어버렸다. 남편에게도 주고 먹게 했다. 인류의 타락이 여기서 시작된다. 에덴을 거기서 빼앗겨 버린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만물이 저주를 받는다. 불행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근본적인 죄이다. 아무리 불효자식이 있다하더라도 용돈을 안 주고 맛있는 걸 안 사오고 전화를 잘 안하는 것도 불효겠지만, 근본적으로 자기 어머니 아버지께 '당신이 무슨 어머니, 아버지냐, 아니다'하는 것보다 더 불효자식은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된 거다. 당신이 우리의 창조주인 것을 거부한 것이다. 하나님 떠난 것이 최대의 죄이다. 로마서 3:23이고, 그 값으로 로마서 6:23에 죽음이 온 것이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요한복음 8:44에 나온 대로 마귀가 유혹해 '너희 아버 마귀'가 된 것이다. 그 때부터 마귀의 종노릇 하고 늘 속아 살며, 마귀의 인도대로 살 수 밖에 없다. 요한복음 14:30, 16:11에 분명히 말했다.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때부터 모든 저주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다. 정말 좋은 것을 따르지 않고 나쁜 것만 따르게 되었다. 진실이 좋은지 누가 모르겠는가. 거짓되게 산다. 의가 좋은지 누가 모르겠는가. 의롭게 살지 않는다. 참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러나 참되게 살지 않는다. 선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근데 악하게 산다. 회한하다. 이렇게 되면서부터이다.(창세기 3:1-6, 요한복음 8:44). 생각을 계속 그렇게 하고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이 근본을 알아야 한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을 지은 것을 탄식, 후회하셨다고 했다. 하나님은 탄식하고 후회만 하지 않으시고 좋으신 하나님은 우주와 인생을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창세기 3:15, 21이다.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고, 원시 복음이라고 한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이야기가 나온다. 14절에 '네가 이렇게 하였구나' 나온다.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랬구나 라는 말이다. 이것을 음미해 보면 3:14에 네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나님의 가장 사랑을 받는, 하나님을 대신해 다스리게 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 게 사탄의 짓이다. '네가 이렇게 하였구나 전에도 그렇게 하더냐' 하시는 거다. 그 창세기 1장 2절-3절에 나온다. 창세기 1:2 흑암, 혼돈, 암흑이다. 그 사탄이다. 3절에는 빛이 임하면서 질서가 형성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3절은 빛의 창조이다. 이 빛은 그냥 빛이 아니고 그 빛은 그리스도의 현현을 말하는 거다. 최초의 복음을 주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의 길, 여러분이 부른 그 찬양대로 그 길을 말하는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이다.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신다. 정자와 난자가 만날 때만 사람이 생성된다. 그런데 특별한 방법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다. 이스라엘의 어느 학자가 법계를 찾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 질 때, 핏물이 흘러서 제사장 위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흘러 그 피를 바르고 죄가 사해지는 것인데, 그 때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면서, 피가 그 떨어졌다. 그 밑에 여호와 동굴이 있었고 그 동굴에 법계가 있었다. 그리스도의 피가 법계 위에 떨어진 것이다. 그 피를 굿어다가 과학연구소에 맡겼는데 X인자(성염색체)만 있었다. 남자에게는 X인자, Y인자가 있고 이는 남자가 남자와 여자에게서 출생한 것임을 의미하는데 그 피는 X인자만

있었다. 그 피에는 남자에서 기원한 남자인자(Y인자)가 없었고 X인자만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정부가 감추고 밝히지 않고 있다. '가시덤불'이라는 책을 보면 그 분의 이름이 나오고 그 학자가 나온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신묘막측한 일들이다. 이번 미국 일정 중에 자연을 보면서 그랬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숨씨가 대단함을 느꼈다. 정말 신묘막측한 분임을 자연을 볼 때, 하늘을 볼 때 정말 그랬다.

창세기 6:14에 하나님은 방주를 통해서 첫 번째로 메시아의 그림자를 나타내신다. 출애굽기 3:18에는 피에 대해 말씀하신다. 이사가 7:14에 하나님 떠난 너희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되는 사건이 있을 거라는 것이다. 이것이 임마누엘 사건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 말한다. 그런데 실제로 일어났다. 마태복음 16:16이다. 물론 마태복음 1:18-23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말한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그가 출생되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였다.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이 나온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 1장에서 '앞서 말한 4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너희의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는가' 말하는 것이다.

**1. 구약이다. Old Testament. 옛날 약속이라는 것이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옛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신약이다. 그러나 여기서 제일 먼저 비밀인 말이 하나님이 감추어둔 구약의 비밀이라는 것이다. 메시아라는 말 자체를 찾아보니. 히브리어로 *מָשִׁיחַ* 마쉬아흐, 기름을 바른다, 붓는다는 동사이다. 메쉬흐, 마샤흐 메시아라는 말은 사실은 영국식 미국식 발음이고, 원래 히브리 발음은 마쉬아흐이다. 이것은 동사이고,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명사이다. 그래서 메시아이다. 구약 말이다. 출애굽기 28장 41절에서 이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다. 또 출애굽기 29장 7절, 21절, 29절에서, 그리고 30장 30절, 40장 13-15절 까지 나온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을 삼으라고 되어 있다. 그 때 그 기름을 붓는 자들이라는 뜻이 메시아라는 것이다. 처음으로 나온다. 제사장을 세울 때이다.

1) 레위기에도 나온다. 제사장을 세울 때이다. 4장 3절, 5절, 16절, 16장 15절, 8장 12절.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제사장을 기름을 부어서 세우라는 것이다. 그 기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기름이 아니고 향수이다. 잘 다듬은 꿀에 향수를 몇 방울 떨어뜨리는 것이고, 출애굽기 30장을 읽으시면 만드는 방식이 다 나온다. 그리고 그 방식대로 향수를 만들어 냄새를 맡고 너희 좋으려고 사용하지 말라고 이야기 한다. 그렇게 자세하게 규정 되어있다. 그런데 성경을 우리는 그냥 막 읽는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의 비밀을 모른 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비밀로 감추어둔 것이다. 말하지 않는다.

2) 왕을 세울 때도 메시아라는 말이 나온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다. 16장 13절에는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웠다. 오늘 본문이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16절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1절에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라고 이야기 한다.

3) 선지자를 세울 때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씀 되어있다. 이것이 구약의 전부이다. 모세 오경에는 주로 제사장을 세워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 길을 제시했다. 그런데 감추어져 있다. 기름부음 받은 자가 감추어져 있다. 그런데 왕정시대부터, 사무엘서부터 이제 왕들이 계속 세워지면서,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고 한다. 그리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부터 선지자들의 이야기인데,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붓는다. 제사장과 왕은 세습제도인데, 그래서 나라가 바뀔 때마다 세습이 바뀐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특별한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운 것이다. 이렇게 세 직분의 이야기가 구약성경이다. 모세 오경과 역사서와 선지서, 그리고 나머지 성경을 다 포함해서 이 메시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은 *מָשִׁיחַ* 마쉬아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다. 내가 이 세 직분을 수행할 자를 보내서 너희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원수, 마귀를 완전히 제하고 너를 해방시켜준다는 약속이 구약의 메시아의 약속이다.

**2. 신약은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이다.** 그 말은 신약에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원래 'Χριστός 크리스토스, Χρίστω 크리스토'라는 말에서 온 말이다. 기름을 바른다, 기름을 붓는다. 동사에서 온 것인데,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헬라 말 중에서도 제일 서민들이 쓰는 'Koine'라는 말을 가지고 신약성경을 기록했다. 즉, 누구든지 읽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고급 말을 쓴 것이 아니라. 가장 알

기 쉬운 말로 썼다는 것이다. 헬레니즘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이기 때문이다. 이 말도 똑같다. 같이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다. 구약 말로는 'ἴδιω 마쉬아흐' 신약 말로는 'Χριστός 그리스도스' 같은 말이다. 이것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 말을 의인화된 말로써 전 세계가 공통된 말로 알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것을 믿는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10절을 읽어보겠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기서 보니 중간에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먼저 알아야 한다. 믿으며 그리고 내가 '그' 인줄 깨닫고, '그'라는 말이 나온다. '그'가 바로 메시아이다. 거기에 13절부터는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진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가 바로 여호와이고, 메시아이다.

1)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이다. 구약을 들어서 이야기 한 것이다.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4복음서가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다. 구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7기적을 통해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분은 구약에서 약속한 그다, 여호와다,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그분이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들을 통해서 전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증명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보면 2장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거의 장마다 나온다. 사도행전 3장 20절에는 구약에서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 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다. 또, 4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너희가 거스르는 구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다는 말이 곧 메시아라는 것이다. 이분이 메시아인데 너희가 대적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4장 26절에도 말씀하시길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구나라고 이야기 한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는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이것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이 예수님은 임금과 구주이신데,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별히 5장 42절에는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말한다. 초대교회 500년 동안 설교의 주제가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였다. 이때 기독교가 가장 아름답고 참된 진짜 기독교였다. 그러나 5세기 이후부터는 주제가 바뀐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때 사순절이 생긴 것 같다. 그래서 기독교가 눈물의 종교가 된 것이다. 왕이 선포되지 않고, 선지자가 선포되지 않았다. 그것이 천 년 동안 계속된 것이다. 세계 역사가들이 주후 500년부터 1517년에 종교 개혁이 되기 전까지 Dark Age라고 한다. 어둠의 시대라고 역사가들이 이야기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어야 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떠나서 망했고, 죄인이 되었고 사단의 울무에 잡히게 되었다고, 이 세 가지를 같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듣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 이야기만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분이 오셔서 모든 일을 완성했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다 이루었다고 선포했다. 사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신앙고백을 베드로가 하니 예수님도 감동을 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삼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그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한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16장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예수님이 말하신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한다. 그래서 천주교가 말한 대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다. 그의 신앙고백에 세운 것이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베드로가 죽는다는 말은 알아들은 것이다. 그러나 삼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은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전의 말을 이해했지만, 십자가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못한 것이다. 여러분 종합적으로 믿으시길 축복한다. 어떤 것은 마음에 들어 믿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면 안 된다. 종합적으로 믿어야 한다. 만약 베드로가 그 말을 믿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셔도 다시 부활하시니 괜찮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는 것이다. 그런데, 절대로 안 된다고 말리다 사탄 말까지 들은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동시에 믿길 축원드린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온전한 완전한 영원한 말씀이다. 모든 것이다. 완전하게 믿으시기 바란다.

2) 이때부터 놀라운 일은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예수 이름으로 말

하지 말아라 그때 모든 공회가 모여서 이것을 방해한 것이다. 사실 교회는 이것을 증거하려고 있는 것인데, 못하게 하는 것이다. 4장 26절에도 계속 대적한다. 사도행전 4장에서 5장을 계속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 못하게 한다. 우리 기독교를, 마가다락방을 꺾박한 것이 그것 때문이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 믿는다. 대부분이 안 믿는다. 소수가 믿는다. 한 0.3%가 예수님이 맞구나 하는데, 어느 날 전 유대인이 이 사실을 공인하는 그 날이 종말이라고 로마서 9장 부터 11장까지 기록되어있다.

**결론을 내리겠다. 놀랍게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특별히 10장 13절은 이름만 불러도 구원을 받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한다. 제가 이야기 드리지 않았는가. 그리스도를 4시간 동안 불렀더니, 위계양이 도망가 버렸다. 한 번도 위계양을 고쳐달라고 고백한 적이 없다. 그냥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 계속 소리치며 고백했더니 위계양이 도망 가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이 모든 위기 앞에서 모든 사건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이 말씀 그대로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 받는 것이다. 거제도도 부흥회 갔다가 절벽에서 굴러 자동차가 박살이 났는데, 그것을 지나가다 보던 모든 사람이 다 죽었겠다고 이야기 했다. 그러나 한 명도 죽지 않았다. 그 때도 우리가 부른 이름은 "주여! 주여!" 만 불렀다.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다. 여러분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시길 축원 드린다. 참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4-26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5절이 더 중요하다. 여자가 "나도 알아요." 메시아, 구약 용어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나도 아오니, 모든 것을 알려 줄 것이다.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다. 놀랍게도 바리새인과 유대 지식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아무도 모를 때, 자신의 일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사람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온 창녀가 알고 있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여러분이 이 비밀을 알게 되길 축복한다. 그래서 여자야, 너와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26절에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10-13절에 나온 바로 그가 나라는 것이다. 구약에서 계속 말하던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바로 나다. 아멘.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여자는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바로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모르지만 상대를 안 해주던 마을 사람들이 다 온 것이다. 다 나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너무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8장 24-2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말하길 예수님을 계속 저주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니 너희가 내가 그 인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러나 25절에서 네가 누구냐 하니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말해 온 자라고 하신다. 계속 말해왔다는 것이다. 분명하게 말하길 골로새서 1장 26-27장 3절까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예수님은 비밀이라고,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런데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로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신다. 그의 이름의 비밀을 알고 부르며,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길 축복한다. 가난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간다. 그리스도 이름을 불러보시라. 놀랍게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혜가 온다. 아이를 데리고 있던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다. "참 놀랍다. 다만 성경을 읽히고 메시지를 계속 쓰게 하고 묵상하게 했을 뿐인데,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한다." 본인도 고백하더라.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계산이 안 된다."고 한다. 우리 참사랑 가족들의 가정과 삶 속에, 앞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이 그대로 실현 되길 축복드린다. 말씀 녹취를 한 주에 5편을 했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다. 공부할 시간이 어떻게 있겠는가. 이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믿으면서 이름만 불러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길을 여신다. 우리가 그렇게도 찾고 있는 진리이시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린찬양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밀이 그리스도임을 알면서도 정리가 되지 않아 주의 종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한 마디라도 옳은 말이 있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말이 있다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에 박히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입어 의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다 구원받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육체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